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제국 시대를 위한 개혁된 케노틱 선교학

로더릭 R. 휴잇

카리브 국제대학교

서론

나는 제국적 인공지능 시대에 개혁주의 선교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처와 변혁적 파괴 및 저항의 추구 속에 뿌리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WCRC 선교 선언문에 대한 나의 응답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교를 재상상하고 재정의하고자 한다. 저는 제국 비판의 관점을 통해 시각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04년 아크라 문서에서 정의한 제국이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군사적 제국주의적 이익, 체계, 네트워크가 수렴된 것"입니다. 제국은 일반적으로 취약한 개인, 공동체, 국가로부터 더 강력한 주체로 부와 권력의 흐름을 강요하고 촉진합니다...

국제주의에서 세계주의로의 제국 권력 변이

이 문서는 제국이 모든 경계를 초월하고 정체성을 박탈 및 재구성하며 문화를 전복하고 국가들을 종속시키며 종교 공동체를 주변화하거나 포섭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묘사는 국가 간 협력, 고립주의 및 극단적 민족주의 반대, 국제기구 지원, 외교를 통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주창하는 국제주의 개념이 지배하던 시대에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다면적 개념은 세계 경제, 문화, 민족 간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을 설명한다. 이는 인공지능을 통한 기술 발전의 양자적 진보와 통신 및 교통 분야의 측량할 수 없는 인간 혁신에 의해 주도된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제국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개혁주의 선교 이해와 실천에 미치는 제국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재구상하는 데 핵심적이다.

제국은 왕관이나 깃발 없이도 계속 작동한다.

제국은 결코 놓지 않는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힘이다. 단지 전략과 서류 작업만 바꿀 뿐이다. 제국의 전략은 영원히 "취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정복하고, 버리는" 것이며, 이후 변이한다. 본 발표는 인공지능이 인간 삶과 노동에 가져온 급속한 발전 속도가 제국의 의제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글로벌 지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장 대담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개혁교회 공동체는 이 제국적 세력에 대해 어떤 선교적 응답을 해야 할까? 개혁 신학과 선교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하는데, 이는 제국적 인공지능 시대의 오만한 주권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개혁주의 선교학은 하나님의 사명이 참여의 주요 초점으로 주변부를 포함한다고 확언한다. 이는 비인간화 논리로 작동하는 지배적 권력 체계에 맞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상처받음이라는 역설에 뿌리내린 교회의 선교적 대응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의 제국주의적·헤게모니적 세력과 맞서라.

따라서 WCRC의 선교 선언문은 디지털 시대에 교회의 선교가 AI의 제국주의적·헤게모니적 세력과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방안을 보다 의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제국주의적 힘은 "데이터 식민주의"와 "알고리즘 편향"을 통해 작동하며, 여기서 이마고 호미니스(Imago Hominis)는 주권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 투영되고 찬양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이익 창출과 통제를 위한 거래 상품으로 이용된다. 이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마고 데이, Imago Dei)의 소유자로 대하라는 선교적 명령에 정면으로 반한다.

개혁주의 선교 비평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 AI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개혁주의 선교적 비평은 깊은 잠에 빠져, 교회들이 급진적 선교 참여를 위해 힘을 얻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감히 주장한다. 이 시대에, 재앙적인 글로벌 세력에 직면하여,

개혁주의 선교는 더 케노틱(kenotic)해져야 하며, 빌립보서 2:6-11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취약한 이들과의 연대의 본에 뿌리내려야 한다. 제국주의 세력과 손잡은 무제한 자본주의와 백인 우월주의/권위주의는 이제 유행처럼 번져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침묵을 강요한다. 극우 반민주 세력의 결집은 그들의 힘을 결집시켜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키고 일당 국가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했는데, 여기서 인종 프로파일링이 표준이 되고 소수자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며 비판적 발언은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취약한 이들과의 연대에 기반한 케노시스 선교 모델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개혁주의 케노틱 선교 모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대에 기반한다. 이는 타인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제국주의적 권력이 아닌, 취약성·관계성·봉사를 통해 정체성과 소명, 증언을 정의하는 이들과의 연대이다. 이러한 케노틱 선교적 초점은 기술적 주권과 전능함을 추구하는 세상에 도전하는 예언적 증언을 포함한다. 따라서 현대 개혁주의 선교적 접근에서 가장 시급한 변화는 케노틱(kenotic)이면서도 선교적인 변혁적 개혁주의 리더십을 촉진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케노틱 선교적 리더십

이 의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윤리적, 도덕적, 관계적 실천을 강조하고, 기술을 인간 발전의 대체물이 아닌 포괄적 인간 발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리더십을 촉진해야 한다. 이 시대의 개혁주의 케노틱 선교적 리더십은 취약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실행하도록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된 노예화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에 맞서 싸우는 정의에 대한 예언적 옹호를 채택해야 한다. 나는 케노시스 개념을 신의 상처를 포용하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사상으로 사용해왔다. 이는 자기 비움과 고통을 통해 신적 권능을 표현한다.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 모델이 겸손한 취약성, 연약함,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보여준다. 나는 제국주의적 AI 세계 질서에 내재된 지배적·통제적·비인간화 논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델이라고 믿는다.

개혁주의 케노시스 선교적 리더십은 이 시대에, 사람들의 삶과 소통, 학습 방식을 변화시키는 제국주의적 AI 환경을 '두려움에 찬 회피'와 '비판적 수용'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지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희망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굳건히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선교의 기회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신기술 시대()에 흔들림 없고 견고하며 탈식민주의적이며 개혁주의적인 해석학적 틀과, 우리의 이해와 실천을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성경 비평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두려움에 의한 후퇴가 아닌 희망적인 참여

마지막으로, 이 WCRC 선교 문서는 교회들이 선교적 정체성, 소명, 증언의 핵심인 교회 고백서와 교리문답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우선성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제국주의적 인공지능 세계 체제의 허위적 주권에 적절히 도전하는 변증론에 참여할 준비가 된, 정보에 입각하고 급진적이며 성숙한 제자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혁주의적 케노시스적 선교적 재구상과 재정립은 두려움이 아닌 깊은 신학적 확신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 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계획의 확실성에 기초하며, 이는 죽음을 물려주는 제국적 불량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혁주의적 선교 담론은 이 제국적 인공지능 세계 질서를 조롱하며, 힘에 기반한 그 권력 개념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것은 자기 비움의 사랑, 연대, 그리고 이 세상의 취약하고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AI 제국의 권력 체계로서의 허세를 벗겨내는 선교적 섬김이다. 이 케노시스적 선교적 대안은 지배와 착취를 위한 지배권과 자기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사랑하며 희생적인 청지기적 섬김을 제공한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적 AI 주도 세계 체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체제는 권력을 투사하기 위해 우상을 창조합니다.

